

국문학연구의 새로운 방향

趙 東

방향 전환의 필요성

(가) 국문학 연구의 내적 발전의 결과로, 자료 자체를 고찰하는 데 머무르는 일차적인 작업에서 자료의 해석을 통해 일반화를 꾀하는 이차적인 작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 우리 학문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의 변화로, 서양학문의 이식을 능사로 삼는 식민지시대 학문에 맞서서 우리 문화의 독자적인 의의를 역설하는 자립화시대의 학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문화 연구의 성과를 근거로 세계적인 보편성에 관해 서양학문과 논란을 벌이는 국제화시대의 학문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 대학의 제도가 바뀌어 학과의 폐쇄성을 시정하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는 데 호응해, 광범위한 학생들이 즐겨 수강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국문학 연구의 역량으로 적극 개발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방향 전환의 기본 노선

(가) 국문학의 어느 한 영역에 머무르는 연구에서 벗어나,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고전문학, 현대문학에 걸쳐 있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에서도 영역이 아닌 문제에 관심을 모으면, 진부하게 느껴지던 사실에서 참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고전문학에 근거를 두고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한 작업이다.

(나) 국문학만의 연구에서 국문학과 민족문화의 다른 영역을, 국문

학과 인접학문을 연결시켜, 공통의 관심사를 포괄적인 안목으로 다루는 연구로 방향을 돌려야 하겠다. 그래서 국문학자가 민족문화의 총체적인 연구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 학문의 바른 길을 찾는 데 앞장서는 것을 긴요한 과제로 삼아 마땅하다.

(다) 국내용 연구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인 연구를 힘써 해야 한다. 국문학이 동아시아문학 또는 제3세계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연구를 통해서 해명하는 데 힘쓰고, 국문학 연구를 근거로 해서 세계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원리를 찾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런 연구성과를 널리 알려 우리 학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연구 과제 예시

(가) 한문은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했는가 아니면 촉진했는가? 한문과 국문, 한문학과 국문문학의 역사적인 관계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그 성과를 한문문화권의 다른 나라와 견주어 살피고, 거기서 더 나아가 산스크리트문화권, 아랍문화권, 라틴어문화권의 경우와도 비교해서, 오랫동안 고민거리인 문제를 이제 다각도로 철저하게 검토한다. 어느 특정 시기에 두 가지 글을 배워서 쓴 과정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적인 작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문어문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민족어문학을 이룩한 사례가 있는가 광범위하게 찾아 논하는 세계적인 범위의 연구도 한다. 이런 연구에서 얻는 결과의 하나로 일본은 한자를, 우리는 한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사실이 밝혀진다. 그래서 오늘날 한자 사용에 힘써 일본을 따르려 하지 말고, 한문을 익혀 우리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소설을 위해 상·하·남·녀가 어떤 구실을 했는가? 소설은 중세문학도 근대문학도 아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소설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여러 사회 집단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했는가 고찰하기로 한다. 상층의 士 또는 귀족, 대두하기 시작한 시민, 하층 민중이 세계 어디서나 소설 형성에 관여한 공통점이 있으면서 그 구체적인 양상은 경우에 따라 달랐다. 한국에서는 士의 신분을 가지고 시민의 관심사를 받아들이므로 이름은 감춘 작가가, 중국에서는 神士의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상실해 본명은 버리고 필명을 사용하는 불만 지식인이, 일본에서는 자기 이름을 상표로 삼는 시민층의 직업적인 작가가 소설 창작을 주도했다. 중국에는 여성을 위한 쉬운 글이 없고, 일본에서는 국문문학을 시민층 남성이 차지한 것과 다르게, 국문이 여성의 글인 한국에서는 여성의 요구가 국문소설의 발전에서 커다란 구실을 했다. 그런 차이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동아시아 세 나라의 사회구조가 다르고, 문학 또한 상이한 성향을 지니게 한다. 비교연구의 영역을 다른 문명권으로까지 확대해서, 소설의 세계사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다) 우리 전통극의 기본 원리인 신명풀이는 서양의 카타르시스나 인도의 라사와 견주어 볼 때 어떤 의의가 있으며,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 신명풀이는 다른 둘과 다르게 관중이 극의 진행에 개입해서 생기며, 카타르시스에서와 같이 갈등을 문제삼고, 라사에서처럼 원만한 결말에 이른다. 신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요구하고, 사람이 신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 라사의 공감을 소중하게 여긴 것과 다르게, 우리는 신이 사람 안에 있다고 여겨 신명풀이를 해 왔다. 그런 차이점을 바로 알아, 오늘날의 공연예술이 카타르시스를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신명풀이를 되살려야 영화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